



# 전자동 글루어스티처 세계 석권을 향해

## 잉여금 사회환원 수요 재창출



▲ 정도영 청용산업기계 대표

고즈넉한 분위기의 청주 외곽지역에 자리잡은 청용산업기계(대표 정도영)를 찾은 날은 가을 분위기를 한껏 풍기고 있었다.

플라타너스 수종으로 이루어진 가로수 길을 지나 청주공단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자리하고 있는 청용산업기계는 낱알이 여물고 있는 논을 앞에 두고 주변에 공장으로 가득한 지리적 여건임에도 들어서는 순간 무엇인지 평온함을 주었다.

설마 하는 마음도 잠시뿐 작은 몸집에 작업복 차림의 정도영 사장을 만나면서 이제껏 보아온 업체 사장이라는 틀에 박힌 이미지를 깨고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었다.

### 장인정신으로 다져진 모습

기술로 다져진 현장인의 모습 그대로 대면하게 된 정 사장을 보는 순간 미리 구상했던 여러가지 질문의 요지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희미해 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이야기 꺼리가 있을 것이란 생각에 젖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선반과 프레스 등 기계와 친해지기 시작했던 정 사장은 1986년 3월 국내 최고의 기술인이 되겠다는 의욕으로 삼익정밀을 설립하여 산업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가운데 88년 골판지 제조용 전자동 글루어를 제작하면서 상호를 청용산업기계제작소로 바꾸고 본격적인 골판지포장기계 제작업체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처음 시작한 삼익정밀이 경영이 어려움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정 사장은 86, 87년 승리철공소에 근무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글루어 스티처를 보고 이 기계를 국산화시켜야 겠다고 마음먹고 90년 1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작업에 나섰다.

정 사장은 그해 12월31일 신정을 세기 위해 창업멤버 몇몇과 함께 고향인 청주로 향하던 중 눈이 많이와 길을 잃고 한동안 여기저기 헤매다 차를 돌리는데 진천 청용사라는 사찰의 간판이 눈에 들어와 그때 상호를 청용산업기계로 정했다고 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올해 여름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기계를 납품하는 날에는 맑게 개이고 납품이 끝나면 다시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자주 있어 상호를 결정할 때부터 어떤 의미 있는 계시(?)가 아닌 가도 생각되어 하늘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청용은 창업후 2년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익이 없는 적자상태

에서 고생을 하다 비로소 지난해부터 여유가 생겨 주변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3억원의 매출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 실적을 뛰어넘어 연말에는 목표치인 18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매년 2배 가까운 성장을 거듭하는데는 철저한 장인정신과 애프터서비스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독특한 경영·영업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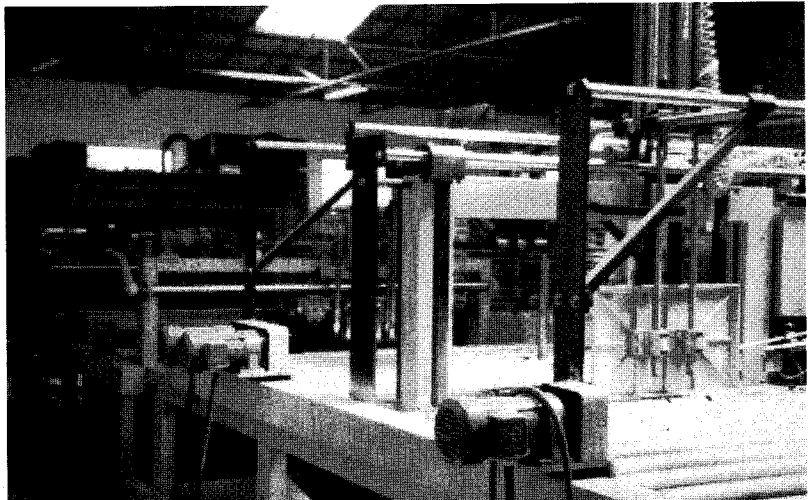
더욱이 기계를 만들다 실패할 경우 안되는 부분만 새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시 만들고 납품된 기계는 새로 바꿔주는 등 다른 업체와 구분되는 영업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익잉여금 모두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는 등 기술개발만 하다보니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 수차례. 차츰 기술개발 성과가 나타나 부천지역에 부지를 마련하여 공장을 시작하려 했으나 가격, 절차 등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교향행을 결심, 청주에 자리잡게 되었다.

정 사장은 "청주는 지리적 위치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을 커버하기에 유리하고 교통입지가 좋아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시간보다 빨라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아직 회사가 어려워 주변이나 직원들에게 그동안 도와준 데 대한 보상은 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어려움을 극복해준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보이는 정 사장은 알려진 대로 좋은 일을 남모르게 하고 있다.

성실하지만 기계 구입에 어려움을



▲ 완전 국산화를 이룩한 슈퍼 드래곤 시리즈 3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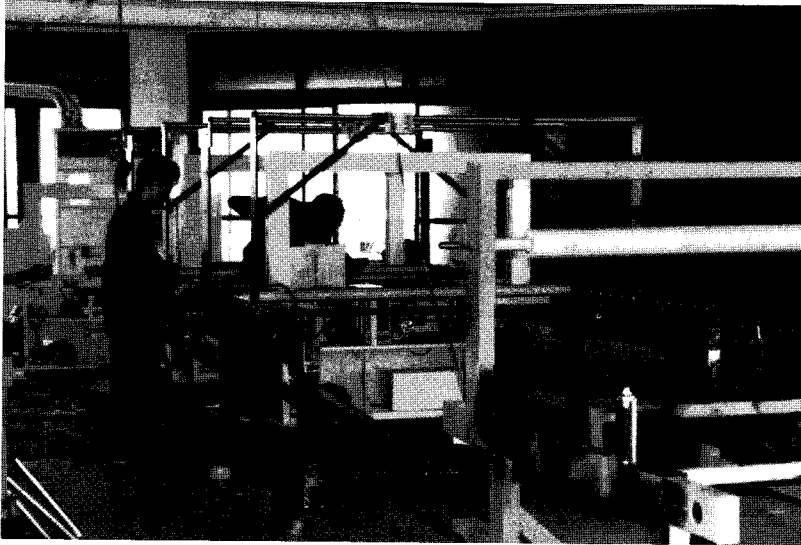
▲ 청용을 이끌어 가는 직원들

겪고 있는 업체 가운데 매년 1개업체 정도는 자체 할부를 통해 기계구입을 도와주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실습기자재가 부족한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감안, 청주소재 주성전문대에 1억여원어치의 교육기자재를 기증한 것이 한 예이지만 그밖에도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창립 초창기 '슈퍼 드래곤시리즈'의 전자동 글루어 스티처머신을 국

산화하여 뛰어난 기능과 설계로 외국의 기계를 앞서 국내 시장을 석권하다시피한 청용이 청주로 이전한 후 주성전문대에 RF밀러 볼트미터, AC볼트 미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등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기자재를 기증한 것이다.

이번에 기증한 실습 기자재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10종 108점으로 고가의 장비임에도 선뜻 기증한 것은 학문에 뜻이 있어도 환경의 어려



▲ 신기술의 산실 청용산업기계 제작 현장

음으로 뜻을 펴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나온 것이다.

그는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더 많은 분야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고 동고동락한 직원들 가운데 장기간속한 사람이 독립을 원할때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독립을 하는데 도움을 줄 방침이라 밝혔다.

이같은 생각은 오로지 기계만을 만들다 적은 규모의 업체지만 경영을 하게 되면서 기술력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의 앞길을 열어 주어야 국가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한다.

정 사장은 요즘 세대들에게서 지적되는 기성세대들의 잘못은 기성세대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고 인정하면서 "올바른 자식을 원하면 생활능력을 키워줘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자식들도 대학 입학금만 마련해 주고 그 후에는 능력껏 하라는 말과 행동으로 의식을 심어주고 있

다"고 말했다.

### 무엇보다 인간이 최우선

기계를 만들다보니 많은 것을 느끼지만 특히 인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라는 정 사장은 "필요없이 소비되는 돈을 절약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물음과 함께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됨을 강조했다.

현재 청용은 2가지 정도 기술개발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성공리에 개발되면 골판지업계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미진했던 수출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현존 인원을 효율적으로 구성된 조직개편으로 내부활성화를 통한 외부 파급효과도 노리고 있다.

정 사장은 직원들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기계를 사용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으로 사용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한다. 따

라서 전직원들은 모두 A/S를 할 수 있는 요원이 되어 있고 언제, 어느 곳에서 A/S 요청이 있으면 달려갈 수 있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A/S의 경우 낮에는 전직원이 뛰지만 밤에는 직원들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 사장이 도맡아 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 A/S를 실시할 경우 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소요부품 및 경비를 가장 저렴한 비용(원가)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

업체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과당경쟁에 대해 "잘 된다고 규모를 비대하게 키우다 보면 투자비용만큼의 이익금이 빠지지 않아 적자경쟁을 하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면 결국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정 사장은 "꾸준히 자기 길만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사용자나 제작자나 공존이 잘 돼야 튼튼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정 사장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선을 바꾸는 사례가 국내 업체간에 특히 많다보니 기술축적이 없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제동이 걸려 결국 영세업체 난립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국내 업체들이 기술 개발 및 영세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사용자들의 경우 무조건 싼 것만을 고집하지 말고 제 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제작업체들도 자신이 없으면 뛰어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정 사장은 "큰 업체를 중심으로 수주전을 펴지 않고 작은 업체부터 공략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기초가 튼튼해 무너질 염려가 없다"며 외국의 경우 한가지 기종을

[표 1] 슈퍼 드래곤과 타 기종의 생산성 비교

| 구 분   | 슈퍼드래곤3200       | 반자동스티처           |
|-------|-----------------|------------------|
| 분 당   | 70매             | 20매              |
| 시 간 당 | 4,200매          | 1,200매           |
| 인 원   | 3명              | 2명               |
| 생산대비  | 1대 3명           | 3대 6명            |
| 인 건 비 | 25,000×3=75,000 | 25,000×6=150,000 |

[표 2] 철침수 5방 기준 평균 생산성 비교

| 구 분   | 슈퍼드래곤3200       | 반자동스티처           |
|-------|-----------------|------------------|
| 분 당   | 160매            | 30매              |
| 시 간 당 | 9,600매          | 1,800매           |
| 인 원   | 3명              | 2명               |
| 생산대비  | 1대 3명           | 4대 7명            |
| 인 건 비 | 25,000×3=75,000 | 25,000×7=175,000 |

수십년 제작해 자국에 맞는 제품을 꾸준히 만들어 내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경쟁력도 생기는 만큼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기계 가운데 최고 기술이라 인정해 줄 때 자부심을 느낀다는 정 사장은 “국산기계는 국산부품을 사용해야 완전한 국산화가 이루어 진다”며 “전자동 글루어 스티처를 완전 국산화 시킨 것이 가장 흐뭇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청용에는 일손이 한가할 때가 없다. 납품이 끝나면 또다른 주문이 들어오고 꾸준히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국제지기, 대영판지(주), 대성판지(주), 안산판지 등 수많은 지합업체에 납품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후발업체에서 동일 기종을 갖고 경쟁에 나선다면 청용은 다른 기계 개발에 나서는 한편 이 기종에서 손을 뗀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성실·근면, 주인 의식·창의력, 기술개발을 사훈으로 자기제품에 대

해 겸손을 보이는 청용은 사용자들이 평가하기 전에 자평은 하지 않는다. 이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인정하는 업체로, 글루어 스티처하면 청용이라는 이미지를 심겠다는 굳은 의지도 포함돼 있다.

### 슈퍼드래곤시리즈로 입지굳혀

청용의 기본 모델인 슈퍼 드래곤 시리즈 가운데 최신 3200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국산화에 성공, 지합업체에 맞게 멀티콘트를 장치로 제작되어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인력난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종이다.

이 기계는 급지부, 이송 및 스테칭부, 간추림부, 밴딩부로 구성되어 완벽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급지부는 메인구동방식으로 속도의 완급조절, 이송박스 간격조절이 쉽고 풀접지장치는 소텐레스를 사용, 녹·부식방지로 반영구적이다.

이송부는 이송중 박스형태를 만드

는 가이드라인이 부러지거나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레탄 소재를 채용하고 스테칭 작업시 박스의 날개를 일치시키는 키카(직각조정장치)를 부착하여 철작업과 풀작업시 버튼 하나로 작업이 가능하게 했다.

스테칭부는 헤드를 고강도 특수강으로 제작, 수명이 길고 부품교체가 쉽고, 철판 간격을 정밀하게 해주는 단성제어장치 채택, 멜트기어방식을 채용하여 스테칭작업시 슬립이 없고 수명이 오래간다.


또 PC 입력에 의해 전기제어가 되며 조작이 간편하고 PC프로그램에 의한 철침수설정이 쉽다.

간추림부는 고정된 판에 박스를 가지런히 쌓이게 하며 크랭크의 동작으로 박스의 귀를 맞춘다. 이와함께 박스의 접착 및 날림방지를 위한 FAN이 채택되었다.

밴딩부는 콘베이어 벨트의 이송에 의한 적층장치, 센서감지에 의한 박스묶음 단위로 설정된후 밴딩부는 이송된다.

또한 박스의 -자와 +자 밴딩을 위한 유로가이드 설치, 유도장치는 공압으로 작동되게 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조금씩 발전해 궁극적으로는 전체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청용의 저력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전문 업체로서 자부심을 갖는 곳이 많아 국제 경쟁에 당당히 나설 때가 다가움을 느꼈다.

세계속의 청용을 위해 건투를 빈다. 

오선진 기자